
바다에서 M

요안나 콘세이요 글 · 그림 / 이지원 옮김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어 #사춘기 #성장통 #정체성 #내적 감정들 #바다 #엄마 #한여름의 추억
작성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고지연 선생님
서현중학교 김문옥 선생님
청덕중학교 김창덕 선생님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문소정 선생님



■ 도서 소개

푸른 바다를 아름답게 그려 낸 요안나 콘세이요의 그림책. 작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소년과 아침의 바다를 함께 보여 줍니다. 주인공 M의 성장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수많은 질문과 거센 감정으로 가득했던 어느 불완전한 시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섬세하게 질감 하나하나를 살린 바다의 그림들을 느껴 보세요. 마치 금방이라도 덮쳐 올 것 같은 파도와 먹먹한 하늘, 그리고 짙은 푸른빛의 물결이 어느 흐린 날의 바닷가를 온전히 담았습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떠올리며 만들 수 있다.
- 작품 속 주인공의 감정을 공감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할 수 있다.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차시
독서 준비	-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과 소품을 골라 보기	1차시
독서	- 바다 그림을 보며 이미지나 감정을 떠올려 보기 - 그림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	2차시
	- 바다와 주인공 M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주인공을 보며 꿈에 대해 느낀 점 쓰기	3차시
	- 글을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기 - 성장통을 겪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기(캘리그래피)	4차시
독서 후	- 10년 후를 상상하고 지금의 나에게 편지 쓰기	5차시

독서 준비

1. 아래 방에 장식하고 싶은 소품이나 액자에 넣고 싶은 그림을 그림책에서 선택하고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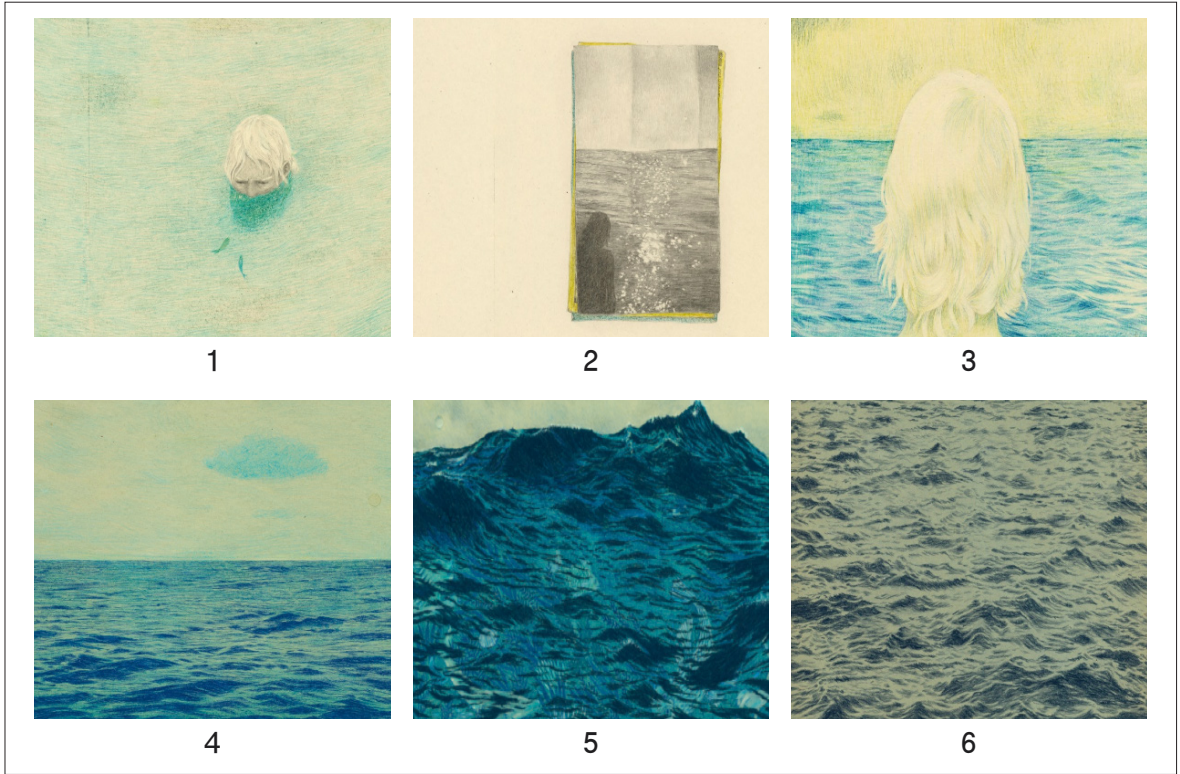
선생님께 그림책의 그림만 먼저 살펴보며 편안한 방 분위기에 어울리는 예쁜 소품이나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해 주세요. 처음부터 『바다에서 M』 글을 읽지 않고 그림만 먼저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줄거리와 추억, 단상들이 얽혀 있어서 따로 보아도 좋고 같이 연결해서 보아도 좋은 그림들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독서

1. 아래의 그림 중 어떤 바다가 가장 좋은지 골라 보고 느껴지는 이미지와 감정을 떠올려 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바다: ()번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이미지(모양, 색깔, 파도의 크기 등)	감정, 느낌
시각		
청각	물장구치다	
후각		
미각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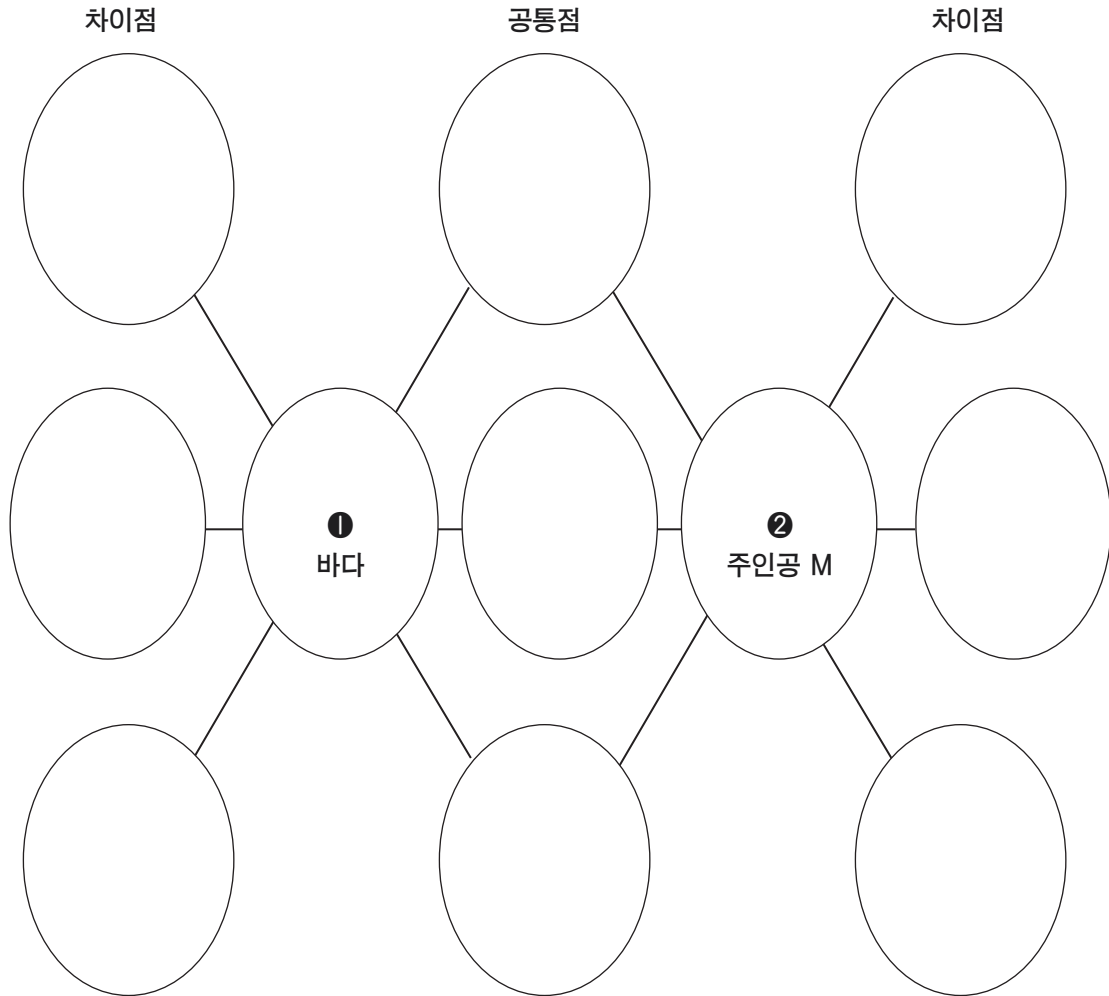
선생님께 눈을 감고 바다와 바다 주변, 바닷속을 상상하게 하면 좋습니다. 바다 색깔의 차이, 갈매기나 아이들 노는 소리, 물장구치는 소리, 비릿한 냄새, 상큼한 냄새, 지독하게 짠맛, 파도의 부드럽고 따듯한 감촉 등 다양한 감각으로 바다를 상상하고 그 주위의 분위기나 상황에서 연상되는 것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이 활동의 의도는 학생들에게 바다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기억하거나 추억하는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2. 위의 바다 그림들이 그림책에서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다음 두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림을 서로 연결해 생각하며 써 봅니다.



()번과 ()사이	
이유	

3. '① 바다'와 '② M'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써 보세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꿈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을 써 봅니다.

선생님께 ①과 ②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 세 개에는 공통점을 쓰게 하고 ①의 왼쪽에는 바다만이 가진 특성이나 요소를 쓰게 하고 ②의 오른쪽에는 주인공 M만이 가진 특성과 요소를 쓰게 하면 됩니다. 바다와 사춘기 아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을 상징과 은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라는 문장에 대한 자신의 느낌, 경험을 떠올리고 친구들과 나눠 보세요.

<p>느낌</p>	<p>느낌</p>
<p>비슷한 경험</p>	<p>비슷한 경험</p>
<p>느낌</p>	<p>느낌</p>
<p>비슷한 경험</p>	<p>비슷한 경험</p>

학번 이름

선생님께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라는 문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쓰게 합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쓴 글을 읽어 보고 느낀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 빈칸에 붙여 줍니다. 그 후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 본 느낌이나 소감을 발표하게 하거나 직접 쓰게 해도 좋습니다. 관련된 시와 소설의 문구를 필사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5. 10년 후의 나를 상상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추억하면서 편지를 써 봅니다.



10년 후의 ○○○이(가) 오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선생님께 위 그림은 『바다에서 M』의 마지막 장을 펼치면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공룡도 있고 종이배도 있고 마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상과 추억이 같이 있는 그림을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며 감상하면 좋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갈등, 혼란이 미래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고 추억될지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도록 안내해 주세요.

독서 후

1. 성장통을 잘 겪어 내고 있는 나를 응원하며 멋진 캘리그래피를 써 봅니다.